

해남, 현산 읍호리 유적 경관 조성 본격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 공공 디자인 개발 등 본격 시동

해남군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 사업을 통한 읍호리 고인돌군 주변 경관 조성 및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

병현관 군수와 윤상홍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해남군이 2024년 문화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산면 읍호리유적 역사 문화권 정비 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역사 경관 공간 개선 및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 ▲디자인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과 협약을 맺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 디자인 혁신 지원사업 관련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대한민국 디자인산업의 중심 기관이다.

병현관 군수는“한국디자인진흥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례들이 읍호리에 적용되어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의 대한민국 대표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선도 사업은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의 고인돌군과 고다산성, 일평리 유적 등 비지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산 역사문화권 탐방센터, 일평리 유적 방문자 센터 등의 시설 건립과 탐방로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함평, 농어촌버스 실내수영장 경유 시범운영

군민 편의 제고 위해 신규 노선 운영... 28일부터 2주간

함평군은 오는 28일부터 5월11일까지 2주간 함평실내수영장을 경유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지난 1월 정식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운영 노선은 기존 100-13번(함평공영터미널~상옥리, 매동), 100-10번(함평공영터미널~보여리)에 신규 노선인 향교사거리~함평실내수영장 2.9km 구간을 포함해 하루 8회 운

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앞서 21일부터 3주간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탑승객 수, 수익률 등 실효성을 분석해 향후 정규 노선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의 군수는 “실내수영장은 군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함평=지대만 기자

순천 ‘스프링 피크’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생명 사랑 문화조성 위한 다양한 예방

순천시가 자살률이 증가하는 봄철(3-6월)을 자살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급증하는 ‘스프링 피크(Spring Peak)’는 봄의 활력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현상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우울감 자가체크와 정신건강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마음건강 편의점 QR코드’ 스티커를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화장실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홍보와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또한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은 자살예방상담(109), 정신건강상담(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061-749-6695)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캠페인, 대면상담, 자살 시도 위기 개입,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으로 불안, 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관광객 ‘북적북적’

축제 내달 4일까지 진행... 슬로길 걷기·은하수투어 등 인기

완도군은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4월 20일 기준 2만 9000여 명이 다녀가며, 상춘객들은 유채꽃이 만개한 청산도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완도군의 대표 봄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유채꽃 내음이 진동하는 슬로길을 걸으며 청산도의 자연을 만끽하고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완주하면 특산품을 제공하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정한 하늘 아래 은하수를 관찰하며 밤하늘의 낭만을 즐기고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별 불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도 인기다.

주민 DJ가 직접 진행하는 소통형 프로그램인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는 사전 소개와 음악, 인터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었다.

청산도의 봄밤을 즐기는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

크’는 4월 26일과 5월 3일에 진행되며, ‘2025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인스타그램 채널(OR 코드)과 현장 안내소에서 사전 신청 후 참가하면 된다.

청산도 범바위 기운을 담은 ‘기(氣) 팔찌 만들기’는 4월 26, 27일과 5월 3,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산도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관광객(완도군 외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 100 명을 대상으로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를 방문하면 완도 특산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군에서는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관광 정책 ‘완도 치유페이’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남은 축제 기간 동안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슬로 시티 청산도에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조성오 목포시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



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

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신안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브랜드 디자인 공개

흑산도 역사·장소성 지닌 고래·홍어·흰꼬리수리 등 표현

신안군이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흑산도는 손암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관련된 역사 자원과 과거 유명했던 서해안 3대 파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300여 종의 철새들이 거쳐 가는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로 널리 알려진 국토 최서남단 해역에 자리한 섬이다.

이번에 공개한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의 브랜드아이덴티티(BI)는 흑산도와 밀접한 동물 중 하나인 고래의 등처럼 생긴 섬들과 그 사이를 날아가는 철새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흑산도를 연상케 하는 짙은 자연의 색을 사용했다.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는 이번 개발한 브랜드 디자인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엠블럼, 로고, 시그니처 등으로 활용하고 흑산도의 역사와 장소성을 지닌 고



래, 홍어, 흰꼬리수리의 캐릭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흑산도가 가진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정경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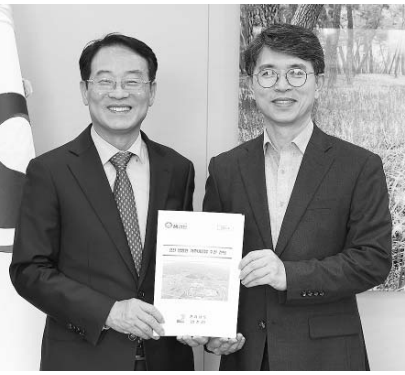
강진 병영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숙원사업 본격화

환경부와 면담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건의

강진군 병영천댐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선정된 가운데 강진원 군수가 지난 17일 환경부를 방문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강군수는 병영면 숙원사업인 병영천댐(홍골제)후보지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지난 3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대다수가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 조절용 댐 재개발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병영면 기후대응댐 사업은 병영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안전한 삶의 터전과 여름철 호우시 홍수 피해로부터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물 그릇을 크게 조성할 수 있는 홍골제 제체 하부



신규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 회의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진군은 총 8년간의 노력을 거쳐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정기총회

환경문제 해결 통해 지역·기업 상생 도모...올해 운영방안 제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이하 지가협)는 21일 Park1538 광양교육관에서 대표 및 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가협은 2012년 설립된 민·관·산·학 협의체로, 현재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 성과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환경 모니터링의 지속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원으로부터 화학사고 대응 교육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 점이 언급되었다.

2025년에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규 취약 사업장 발굴 및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 규약,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계획, 차기 임원진 선임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병찬 순천제일대학교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광양제철소는 2025년 2고로 부분 개수 계획과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고로는 용량 증대 없는 필수 설비 중심의 부분 개수로, 전기로 도입과 저탄소 고로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H₂REX’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연간 30만 톤 규모의 시험 플랜트 테스트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기여할 예정이다.

이병찬 신임 회장은 “협의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가협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기업-지

무안, 민생회복지원금 야간·주말 지급 창구 운영

무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남악·오룡 주민 대상으로 야간·주말 특별 지급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직장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평일 주간 방문이 어려운 남악·오룡 지역 주민들의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마련됐다.

야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밤 9시까지 지급하고, 주말은 4월 26일(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다목적강당에서 지급한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4월 16일 기준 전체 군민 9만 3천여 명 중 88%인 8만 2천여 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김산 군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군민들께서도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남악과 오룡 지역 주민들께서는 해당 기간을 잘 활용하시어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영암, 마을 찾아가는 스마트 마을방송 사용법 교육

영암군이 최근 군서면 신기동마을에서 ‘2025년 찾아가는 스마트 마을(재난)방송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외부 확정기와 가정 수신기만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마을방송을 휴대전화로도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을 도입한 영암군은, 이일부터 각 읍·면 마을을 찾아가 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이날 교육은 마을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휴대폰 앱 설치에서 마을방송 사용법까지를 체험하며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암군민 누구나 휴대폰에서 ‘영암군 스마트재난방송 청취용’ 앱을 설치하거나, 방송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영암군의 찾아가는 마을방송 사용법 교육은 연중 실시 예정이고,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을은 읍·면행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기동마을 김용수 씨는 “교육에 참여해 휴대폰에 앱도 깔고, 마을방송하는 방법도 배웠다. 지금까지 놓친 마을방송도 많았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어 편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